

2004년 9월 1일 발행 제39권 제3호 연 4회 발간

# Stereo Sound

하이엔드 오디오의 향연  
컴포넌트 조합으로 듣는다  
디지털 앰프의 모든 것

AUTUMN 151  
2004 No.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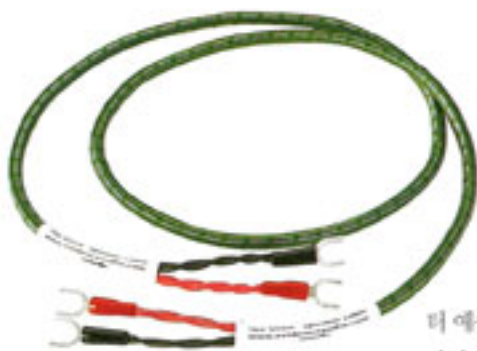
계간 스테레오 사운드 NO.151 2004 [한국판 가을호]

문화관광부 선정 제10회 우수 잡지

# 빠르고 탄탄한 저음을 위한 동선 단심 구조 음악의 발음과 활기를 정확히 재생

에비던스 오디오는 모두 네 종류의 케이블을 소개하고 있다. 마이크로폰 케이블 리릭(Lyric), 전자 악기용 케이블 리릭 HG(Lyric HG), AC 전원 케이블 소스(Source), 그리고 여기 소개하는 스피커 케이블 사이렌(Siren). 에비던스 오디오의 모든 케이블에는 7N의 고순도 동선이 사용된다.

사진·이창재 글·윤한주(오디오 엔지니어)



## EVIDENCE AUDIO Speaker Cable THE SIREN

₩33,000(1m)

- 동선 : 7N 동선
- 규격 : 5 AWG
- 절연재 : 폴리프로필렌
- 도금 : PVC
- 문의 : (주)에비던스 C2949-047

미국에 기반을 둔 에비던스 오디오는 1997년 창립해 전자 악기 및 스튜디오용 케이블을 공급해 왔다. 이곳에서 설계한 케이블의 특징은 구리 단심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체에서 고음역의 디테일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닥의 가느다란 심선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다.

에비던스 오디오는 단심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에 비해 여러 가닥의 가느다란 심선으로 된 케이블이 대개 하모닉스를 과장해서 느끼고 살린 저음역을 만들어 내 음악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과 펀치를 정확히 재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자의 경우는 아예 리본처럼 얇은 동판으로 이뤄져 있는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맞게 '사이렌'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 재생되는 음악은 탄탄하고 퍼지지 않게 들린다.

한편, 단심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

터 예상할 수 있듯이 케이블은 여러 가닥의 가느다란 심선으로 구성된 케이블 만큼 고음역이 더 나온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다. 리본처럼 얇은 동판으로 된 케이블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다.

파노라마를 열어 보면 고음역에 볼 오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저음역이 부풀어 오르면서 고음역을 마스킹시키는 저질스런 왜곡이 아니라 고음역 신호가 신체의 구조적인 영향에 의해 자연히 높은 주파수의 전기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음압이 감소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덕분에 밸런스는 살짝 묵직해지는 경향이 있고 볼륨을 좀더 높여 듣게 된다.

하지만 이 고음역의 볼 오프를 딱히 지적할 만큼 심각한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보다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더 많은 것 같다. 가격은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소란한 소리가 나지 않는 차분하고 고급스런 특성을 갖고 있으며 피크에 다다른 부분에서도 거칠어 지거나 그레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100

만 원이 넘는 스피커 케이블에서도 거칠어진 그레인이 음악 중간 중간에 들출되는 경우가 있어 놀리던 것을 생각하면 사이렌 스피커 케이블이 가진 훌륭한 성능에 더 놀라게 된다.

그리고 특정 대역을 강조시켜 광채를 내지 않고 악기의 배음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점은 칭찬거리에 추가될 수 있을 듯하다.

그 대신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드는 저 빠른 느낌은 주지 않는다. 좀더 고영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음량을 좀더 높여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신나고 빠른 곡에서는 신나는 소리가 난다. 사실 이 정도로도 대단한 편이지만 가격을 떠나 절대적인 관점에서 좀더 칭찬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에비던스 오디오의 사이렌 스피커 케이블만큼 한정된 성능을 갖고 있는 저렴한 스피커 케이블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다. 자신의 시스템 소리가 너무 밍아 고민인 사람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제품이다. ☺